

한반도 평화와 통일 13.

북한의 문화예술

1. 북한에서는 왜 문학예술이 중요할까?(1)

1

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영화: 정치적 선전선동수단

- 레닌, 스탈린, 모택동, 김일성 모두 영화평
- 김정일: 문학예술담당(1969년 선전선동부 부부장)
‘혁명적 대작’: [피바다], [한 자위단원의 운명], [꽃파는 처녀] 등
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정치지도자로서 공적인 업무

1. 북한에서는 왜 문학예술이 중요할까?(2)

2

북한 문예정책의 특성

1) 북한에서의 문학예술

-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산물(당이 문학 예술 장악)
- 문학·예술 작품평가 척도: 이념
- 정치권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문학·예술에 반영

2) 북한의 문예관

-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충실한 묘사
-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는 특정한 경향성 추구
- 북한의 권력구조와 밀접하게 연관

1. 북한에서는 왜 문학예술이 중요할까?(3)

2

북한 문예정책의 특성

3) 북한 문학·예술의 특성

- ① 지배이념을 확산하는 중요한 정치적 도구
- ② 현 권력구조를 정당화 하는 역할
- ③ 인민들의 현실 및 정서와 부합하는 인민성 강조

1. 북한에서는 왜 문학예술이 중요할까?(4)

3

북한 문예정책의 변화과정

1) 1970년대 수령형상문학의 대두

<수령형상문학>

- 1967년 문학예술계 반 종파투쟁
- 1972년 9월 6일 조선문학예술 총 동맹 산하 사상투쟁회의
: 유일사상 외 불건전한 사상요소 비판
: 수령에 대한 충성과 열정회복
- 내용: 수령의 절대성
- 수령형상문학: 총서 「불멸의 력사」, 5대 혁명가극, 5대 혁명연극

1. 북한에서는 왜 문학예술이 중요할까?(5)

3

북한 문예정책의 변화과정

2) 1980년대 숨은 영웅 형상문학의 등장

- 1980년대 북한 문학예술계 변화(설득력 잃어감)
- 숨은 영웅: 영웅적 인물과 대비되는 다수의 익명의 보통 사람들
(예: 과학기술자, 하급당원, 간호사, 주부, 농부 등)
- 기존 수령형상문학+숨은 영웅 형상문학

3) 1990년대 혁명성의 강화

- 1980년대 후반 다시 혁명성과 이념성이 강조

1. 북한에서는 왜 문학예술이 중요할까?(6)

3

북한 문예정책의 변화과정

4) 문예정책 변화의 의미

정부수립-1960년대 초: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카프 전통

1967년: 수령형상문학, 항일혁명문학(계급성, 혁명성)

1980년: 숨은 영웅 형상문학 제안(인민성, 오락적 성격-인민수준 향상)

1986년 이후: 혁명전통과 수령형상문학 중시

1990년대: 주체문예이론(기존 문화 사조 포함)

1. 북한에서는 왜 문학예술이 중요할까?(7)

3

북한 문예정책의 변화과정

4) 문예정책 변화의 의미

① 북한 정치상황의 변화

수령형상문학-유일지배체제의 성립

1990년대 문예정책에서 민족주의경향 대두-조선민족제일주의

②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

1967년 이후 수령형상문학중시(획일화된 문학예술작품)

→ 주민들의 관심저하

→ 숨은영웅형상화 문학 대두

1. 북한에서는 왜 문학예술이 중요할까?(8)

3

북한 문예정책의 변화과정

4) 문예정책 변화의 의미

③ 사회구조의 변화→문예정책에 반영

- 세대갈등, 도-농 갈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 대두(사회구조의 변화)

④ 남한문화의 관계

- 민족문화 보존과 재창조: 남한문화와 경쟁과 교류로 인해

2. 북한영화는 일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까?(9)

1

영화 산업

1) 영화산업

- 1990년대 중반 경제난: 영화 제작편수 감소 (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)
- 경제난 이후 영화제작: 실리와 혁신 강조, '최소비용, 최대효과'

① 경제난 이전

- 1년 기획안, 국가가 예산지원→ 흥행부담, 결과에 대한 관심 적었음

② 경제난 이후

- 평가위원회 '실패한 영화'연출자는 60%의 감봉(제작 흥행에 대한 부담)
- 3회 실패하면 연출 못하게

2. 북한영화는 일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까?(10)

1

영화 산업

2) 영화 제작환경

- 1990년대 영화제작의 어려움 '어두운 화면'
- 2000년 <살아있는 령혼들>(북한판 타이타닉) 전폭적인 지원
- 5.18 영화과학연구소(2000년대 초)
 - : 촬영기재, 특수효과를 위한 미니어처 제작
 - 합성촬영, 편집, CG, 디지털기술, 현상기술 등 연구개발
- 현재 TV드라마 인기, TV드라마가 영화제작에 많은 영향
- TV탤런트들의 자연스러운 연기->영화배우의 연기에 영향

2. 북한영화는 일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까?(11)

1

영화 산업



http://umc.ek.unikorea.go.kr/Data/MV/20100729143329_0.jpg

2000년<살아있는 영혼들>

2. 북한영화는 일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까?(12)

1

영화 산업

3) 영화미학

-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의 특징: '내용과 형식의 다양화'

① 세대갈등과 통합(1990년대 초)

- <민족과 운명> '최현 편', <가족룡구선수단>

② 나라를 지킨 삶/나라를 버린 사람 <도라지 꽃>

: 고향을 지킨 사람과 그곳을 떠나 도시로 간 사람의 대립

- “어려운 날에나 좋은 날에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강화 발전

③ 전통, 역사, 민족 <민족과 운명 '로동계급편'>

- 천리마운동의 기억과 의미, 통합요소를 노동계급의 동질성

2. 북한영화는 일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까?(13)

1

영화 산업



<http://unibook.unikorea.go.kr/Data/MV/20100729143329>

① 세대갈등과 통합 <가족롱구선수단>



http://unibook.unikorea.go.kr/Data/MV/20100729175029_1.jp

(도시를 동경하여 고향을 떠났던 원봉은 후회하며,
속죄의 뜻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자기아들을 고향에 정착시키기 위해

② 나라를 지킨 삶/ 버린 삶 <도라지 꽃>

2. 북한영화는 일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까?(14)

1

영화 산업

3) 영화미학

④ 경희극적 특성: 고난의 행군에 처한 인민들의 웃음과 희망

- '김세륵'의 코미디 방식: 오해와 반복, 점층적 오해의 증가로 인한 낭패

④ <청춘이여>



2. 외국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인기는 어느 정도?(15)

1

북한에서의 '한류'란

: '북한 지역에서 수용되고 있는 남한의 대중문화' 지칭

- 처음에는 북-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시작
- 최근에는 넓은 지역에서 지속적 수용되는 것으로 추정

: '유행'이라 할 정도로 북한사회 전역에 확산되는지는 판단 불가

- 초기에는 대중가요와 드라마

→ 최근 미용이나 말투 등 일상 생활문화로 확산

2. 외국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인기는 어느 정도?(16)

2

북한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(탈북민의 인터뷰 결과)

① 남한 드라마

- 초창기: <겨울연가>(2002), <남자의 향기>(1998) 등 멜로물
- 2000년대 후반: <말죽거리 잔혹사>, <목포는 항구다>(2004) 액션물
<대장금>(2003 ~ 2004), <해신>(2004 ~ 2005) 역사물

② 남한의 10대 문화 수용

- 대도시의 고위층이나 부유층 자녀 중 10-20대
- 남한의 뮤직비디오 인기
- 남한의 아이돌 그룹이 부른 랩, 힙합, 록 등 옷차림, 몸짓 흉내

2. 외국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인기는 어느 정도?(17)

2

북한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(탈북민의 인터뷰 결과)

③ 외국 영화 및 드라마

- 스토리가 뻔 한 남한 영화나 드라마보다 미국 것 선택
- <람보 4>(2008), <007 카지노 로얄>(2006), <슈퍼맨 리턴즈>(2006)
<아마겟돈>(1998) 등의 미국 액션영화
- <프리즌 브레이크> 등의 미국 드라마에 더 열광
- 남한영화 드라마:

“깡패이야기, 사랑타령이야기 뿐
특히 입씨름 말장난이나 협잡이 너무 많아 식상”

2. 외국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인기는 어느 정도?(18)

2

북한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(탈북민의 인터뷰 결과)

④ 남한의 생활문화를 직접 수용, 확산시키는 양상(젊은이)

- 각종 전자제품(LG TV, 애니콜 '손전화기', 믹서기 등)
- 생활용품(한국도자기, 식기, 장갑 등), 식료품(다시다 등)
기호식품(커피믹스 등), 과자류(초코파이 등), 의류(뽕때바지 등)까지
- 고가제품은 뇌물이나 혼수용품으로 인기
- 드라마 <시크릿 가든>에서 유행한 현빈의 의상,
<역전의 여왕>의 김남주 패션 등을 따라 하려는 북한 청년